

2019년 (통권65호)

발행인·정규형 / 편집인·손준홍 / 발행·기획실 / 등록번호·인전바01043 / 디자인·(주)꽃을담다(02.325.964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5(부평동) 한길안과병원 Tel_032.503.3322 Fax_032.503.0801



외국인환자 유치 우수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제도'는 외국인환자 특화 서비스와 환자 안전체계를 평가하여 정부가 직접 인증을 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안과 전문 병원

'전문병원'이란 특정 진료과목 및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병원

'의료기관 인증'이란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 의료의 질 등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엄격하게 평가해,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을 주는 제도입니다.

4월부터 우리 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이 변경됩니다

4월부터 우리 병원의 평일(월~금) 진료시간이 변경됩니다. 오전에 병원을 찾는 고객 분들이 점점 증가하여 오전 진료 시간을 조금이나마 늘리고자 30분 앞당겨 오전 8시30분부터 진료를 시작합니다. 오후 진료시간 역시 30분 앞당겨져 오후 5시까지 진료합니다. 점심시간은 그대로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입니다. 병원 이용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일부터

평일(월~금)
08:30~17:00
점심시간
12:30~13:30

우리 병원에 새롭게 합류한 의료진을 소개합니다

올해 3월부터 망막, 녹내장, 성형안과 분야의 새로운 의료진이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알록달록 봄을 물들이는 꽃처럼 우리 병원에 다채로운 분위기를 더할 의료진을 소개합니다.



망막센터		녹내장센터	성형안과센터	내과
손지성 진료과장	안자영 진료과장	이정현 진료과장	이보람 진료과장	박주희 진료과장
전문분야				
망막, 유리체, 백내장	망막, 유리체, 백내장	녹내장, 백내장	성형안과, 눈물길질환, 백내장	호흡기질환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 표창 수상



우리 병원이 지난 3월 14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로 개최된 '메디컬코리아 2018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 포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 포상은 한국의료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이 큰 단체·개인을 발굴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우리 병원은 '외국인환자 유치 부문'에서 수상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인프라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한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병원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주관한 외국인환자 관련 인증제도 2가지(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를 모두 통과한 유일한 안과전문병원입니다.

또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베트남 등 다양한 지역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제로 인천시의 외국인환자 유치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병원을 찾는 내·외국인환자 분들이 만족스러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호부 병동팀, 간호학술상 QI 부문 수상



QI

Quality Improvement

? 병원의 질 개선과 환자만족도 향상을 위해 병원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도관리사업

지난 3월 15일, 우리 병원 간호부 병동팀이 제24회 인천광역시간호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QI상을 수상했습니다. 참여한 QI 주제는 '응급매뉴얼 제작,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입니다. 최근 고령 및 복합질환 환자, 고위험 환자(전신마취, 수면마취)가 증가하고 있어 병동 내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능력을 키울 필요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선 '모의응급상황'을 제시하여 병동 내 간호인력의 대처능력을 평가한 뒤 공동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설문조사를 통해 실무를 하며 어려웠던 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개선 방법은 총 2가지로 첫째, 우리 병동 현황에 맞춘 구체

적인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모의 훈련 및 이론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평가를 개발하여 평가했습니다.

QI활동에 참여한 운영선 간호사는 "야간 근무 때는 근무자 수가 적어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곤 했는데, 이제는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진 병동팀장은 "병동팀의 전체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함께 애써준 팀원들에게 고맙다"며 "환자 분들이 수술 후 회복에 집중하며 마음 편히 머무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빨간 목도리에 따뜻한 마음을 담다



지난 2월, 조범진 진료원장이 뜻깊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95세의 장옥성 환자분이 한 코, 한 코 직접 뜨 목도리를 선물한 것입니다. 장옥성님은 2018년 10월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우리 병원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거쳐 백내장이라는 진단을 받은 뒤 곧바로 조범진 진료원장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여러 번 내원하여 검사와 치료를 받으며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보았습니다. 장옥성님은 진료와 수술 과정에서 따뜻하게 대해준 조범진 진료원장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특별한 선물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조범진 진료원장은 "90세가 넘는 고령의 환자 분이어서 우려되는 점도 있었지만 무사히 수술을 마쳤고, 수술 후 경과가 좋아 마음이 편안하다"며 "덕분에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다. 정성에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아픈 눈뿐 아니라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우리 병원 친절직원

아픈 눈과 함께 이로 인해 불편한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우리 병원 친절직원을 소개합니다. 친절직원 및 사연은 각 층에 설치한 ‘고객의 소리함’을 통해 모집했으며, 내원한 환자 및 보호자가 직접 추천해 주었습니다.



간호부 외래3파트
서승현 직원

추천인 : 김ㅇ미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길안과병원에서 결막염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한길안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눈이 아픈 환자가 정말로 많구나.” 그래서 사실 기다리는 게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4층 서승현 선생님을 만나 저의 이런 생각을 모조리 바꾼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환자가 많았습니다. 예약을 하고 왔음에도 대기 시간이 많이 길어졌지요. 물론 간호사 선생님도 의사 선생님도 정신없이 환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약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까지 기다려야 되나 싶을 때 서승현 선생님이 다가와서

“오늘 환자가 너무 많아서 대기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앞에 환자가 3명 있으니 최대한 빨리 진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하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몇 시간이라도 기다릴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바쁘게 일하면서 환자 한 명, 한 명 배려하고 설명해 주시는 서승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꼭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검사팀 검사 1파트
장세현 직원

추천인 : 천ㅇ연 님 보호자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부터 한길안과병원에서 진료 받고 있는 천ㅇ연 환자의 보호자입니다. 검사실 장세현 선생님을 칭찬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5년째 한길안과병원을 다니면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장세현 선생님이 유독 너무나도 친절하시고 바쁜 와중에도 한 마디, 한 마디 상냥하고 친절하게 믿음이 가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진료를 보는데 장세현 선생님이 계시면 반가웠어요~

사람은 얼굴 값 한다고 하잖아요. 장세현 선생님, 얼굴도 잘생기고 친절까지 하시니 정말로 완벽한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대비, 전 직원 골든벨 실시 🛎



지난 3월 14일, 곧 다가올 3주기 의료기관 인증 제도를 대비하기 위해 진료를 마친 후 전 직원이 10층 강당에 모여 골든벨을 치렀습니다. 의료진, 간호부, 검사팀, 행정부서 등 다양한 팀의 사람들이 한 조가 되어 다함께 문제를 풀며 그동안 숙지하고 의료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인증 관련 지식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인했습니다.



각 조에서 한 명씩 나와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된 골든벨의 난이도는 별 1~3개로 다양했고, 문제를 맞으면 난이도에 따라 스티커를 지급했습니다. 문제가 나오면 서로 답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조원이 문제를 맞으면 환호하는 등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이날 가장 많은 문제를 맞힌 조는 손준홍 병원장이 속한 5조로 30만원의 상품권을 부상으로 받았습니다. 스티커를 가장 많이 모은 MVP는 진단검사팀의 김보미 직원으로 10만원의 상품권을 수여했습니다.

골든벨 후반까지 남은 원무팀 기호현 신입직원은 “1월 말에 입사한 터라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이 알게 되었다”며 “진지하게 시험을 치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다 같이 모여 문제를 푸는 방식도 좋은 것 같다”고 참여소감을 밝혔습니다.

MVP를 수상한 진단검사팀 김보미 직원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부상까지 받게 되어 기쁘다. 다가올 본 조사에서도 준비한 만큼 실수 없이 응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07여단 부대장병 위문품 전달



3월 18일, 한길안과병원 박덕영 기획이사과 김기학 시설관리·의공팀장이 인천 소재 군부대, 507여단을 찾았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부대장병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작년 10월 병원 전 직원 체육대회 개최 장소

로 507여단의 체육관을 대여하면서 인연을 맺었고, 이후 부대장병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TV 2대를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박덕영 기획이사는 “묵묵히 나라를 지키는 국군장병의 노고에 늘 감사한다”며 “소소한 위문품이지만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의학과 학생 임상실습 실시

우리 병원과 교육협력을 체결한 가톨릭관동대학교 의 의학과 학생들이 4월 8일부터 우리 병원에서 안과 임상실습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실습 과정을 통해 안과 질환을 앓는 환자를 진료할 때 필요한 병력을 청취하고, 이학적 검사법*과 기본 술기를 숙지하게 됩니다. 또한 세미나 및 콘퍼런스 활동을 함으로써 안과 질환의 새로운 개념을 접하는 동시에 장래 연구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배울 예정입니다.

임상실습 책임교수를 맡고 있는 임태형 라식센터장은 “이번 실습이 안과전문의를 꿈꾸는 인재들이 의사로서의 지성(知性)과 마음가짐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많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학적 검사법 :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에 의해 환자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는 검사법

실습 구성

- ① 안과질환 강의 참석
- ② 외래, 검사실, 수술실, 시력교정기술실 참관
- ③ 원내 학술집담회 참석
- ④ Case 발표

365일 눈 건강을 생각합니다

WWW.HANGILEYE.CO.KR

진료 안내

- 대표전화 _ 1577-7117
- 기타안내 _ 032) 503-3322
- 라식센터 _ 032) 529-1001
- 평 일 _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 토 요 일 _ 오전 8시 30분 ~ 오후 1시 30분

- ※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진합니다.
- ※ 점심시간(12:30~13:30)을 피해서 오시면 진료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 ※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진료합니다.

한길안과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건강한 눈을 위한

원스톱 토털케어

한길안과병원만의 특별함

- ◆ 6개 전문센터 종일 외래 진료 가동
- ◆ 전문센터 간 빠른 협진으로 안과 전 분야 통합진료

“중복 안과 질환을 단 하루에!”

안과와 관련된 모든 질환을 단 하루에 진료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실력과 의료진의 눈 질환 완벽 케어”

대학병원에 견줄 만큼 우수한 33명의 의료진이 안과 전 분야 특화 진료를 제공합니다.

“믿고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는 병원”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 등에 대해 그 우수성을 인정했습니다.

“고가의 다양한 첨단 의료장비”

220여 개의 전문 안과장비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료합니다.

“멀리 해외까지 입소문 난 병원”

국제적 수준에 걸맞은 의료서비스로 세계와 경쟁합니다.

_ 연간 외국인 진료건수 : 1,151건(2018년)



언론에 비친 한길안과병원

신문보도

조선일보

한길안과병원,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2018.11.12.

국민일보

인천관광공사, 한길안과병원 등과 손잡고 베트남 호치민 의료관광 시장 개척
2018.10.31.

인천일보

의료관광객 유치 위해 '몽골' 집중 공략
2018.11.26.

사이언스타임즈

미세먼지 심한 날... 안구건조증 예방하려면?
임태형 라식센터장 도움말 게재
2018.11.28.

경인일보

세월의 무게 못이긴 '눈꺼풀' 축 처진 자신감
이상연 진료부장 도움말 게재
2019.4.3.

한길안과병원 슈가이 빅토리아 국제진료파트장, 인천시장 표창
2018.12.30.

“외국인환자 모셔라”

의료기관 해외마케팅 활발
2018.11.29.

의학신문 외 2개 매체

한길안과병원, 메디컬코리아 글로벌헬스케어 유공 표창 수상
2019.3.14.